

화천형 행복 일자리 사업

행안부 우수 사례로 선정

화천군이 정부의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7일 행정안전부는 광역 17개 지자체, 기초 226개 지자체 중 화천군의 '화천형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00만원까지 확보했다.

화천형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군민들이 근로 경험을 쌓도록 배려해 장기적으로 민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 교육 차원에서 역할도 크다.

화천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산천어축제 지원 등 196개 분야에서 모두 836명의 지역주민들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채용을 위해 별도의 '화천형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 채용 관리지침'도 만들었다.

나아가 일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기보다는 일자리 수요가 있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 여건에 맞는 인원을 선발해 운영의 효율성도 끌어 올렸다. 화천군은 내년 화천산천어축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행복 일자리를 제공해 농한기 소득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형 행복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말 그대로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속초시, 12월 1일부터 바다향

기로 데크 산책로 통행금지

속초시는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의 안전등급이 E등급(불량)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해당 데크 산책로 전 구간의 통행을 금지한다.

시는 지난 6월, 정밀안전점검을 받주해 진행한 바 있다. 산책로가 받은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시는 점검 결과와 안전등급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책로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에서는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가 위치 특성상, 염분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돼,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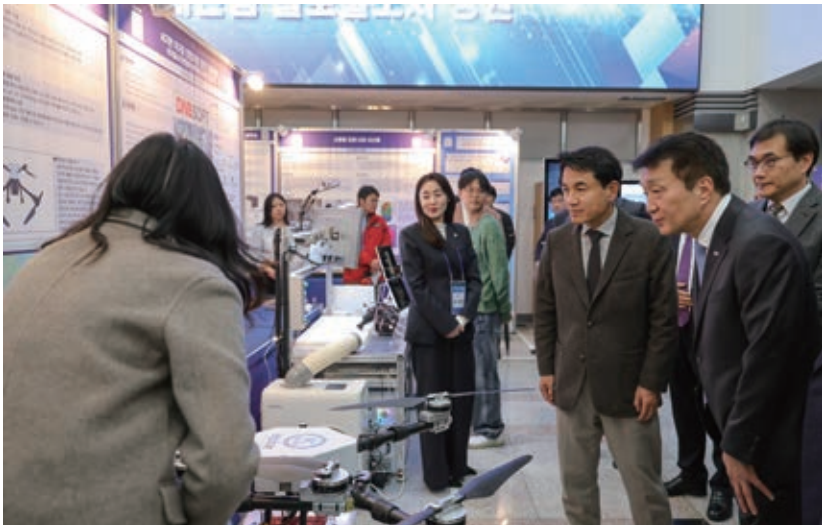
한편, 시는 바다향기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2026년도에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자재 및 공법의 적정성을 자세히 검토해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통행이 가능한 일부 구간을 우선 개방한다. 또한,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추가로 확보해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속초시 전체의 관광자인 바다향기로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산책로를 조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새롭게 바다향기로 데크 산책로를 조성해 더 많은 분이 속초시의 해상 관광자원을 만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 강원 Digital Super Week 첫 개최

11.26.~28일까지 3일간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려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디지털·AI 성과 공유의 장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제1회 '2025 강원 Digital Super Week'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AI)분야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디지털산업의 역량 결집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도가 주최하고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정보문화산업

진흥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ICT융합연구원 ▲강원대학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개막식은 11월 27일 오후 1시에 개최되었으며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ICT 기업, 강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대학,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도내 디지털 혁신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강원 Digital Super Week'는 그동안

안 기관별로 분산·개별 추진되던 디지털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과 성과 확산을 높이고자 마련된 첫 통합행사로 의미가 크다.

기존 단순 성과보고회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기업 성과 전시, 강연 및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업 기반을 확대했으며, 올해 주제인 'AX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는 강원 AI 전환(AX)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김진태 지사는 "미국에 슈퍼볼이 있다면, 대한민국 강원도에는 디지털 슈퍼위크가 있다"며, "도에서는 3+3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원주 미래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이 각기 분산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를 공유하고 융합할 필요성이 있다"며, "올해 춘천에서 시작한 다음에는 원주, 강릉에서 차례로 개최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나머지 3은 기업, 대학, 지자체가 기술, 인재, 정책을 결합해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동해시,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해양분야 교류 행사

동해안권 발전을 위한 정관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선상아카데미(주제

: 동해의 해양치유자원활용법), 「한바다호」 관선 프로그램 진행



동해시는 11월 26일(수), 묵호항에 정박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글로벌 허브도시와 함께하는 선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체결한 동해시-국립한국해양대학교 간 상호교류 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의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해양 인문강좌 및 진로 탐

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2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한국해양대학교 주관으로 추진됐다.

행사 개최를 위해 동해시에 입항한 실습선 한바다호는 2005년 12월 건조된 6,686톤급 선박으로, 24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최첨단 항해장비와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춘 대형 실습선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회의원, 동

해시장, 동해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산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동해안권 발전 정관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돼, 해양·항만 분야 협력 강화와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동해의 해양치유자원 활용법'을 주제로 한 선상 아카데미와 함께, 한바다호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관선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실습선 승선을 통해 해양 분야 직업 세계를 체험하며 진로 탐색의 폭을 넓혔고, 특히 해양 관련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됐다. 시민들에게도 해양의식을 높이고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전상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허브도시 동해시와의 교류 행사를 통해 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한국·일본 교통연구기관, 강릉시 ITS 체험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도시이자 ITS 서비스 선도도시로서 국내외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27일(목) 한국교통연구원장과 일본교통관연구소를 포함한 양국 주요 교통분야 연구위원들이 강릉시 도시정보센터를 공식 방문한다.

강릉시는 ITS 구축성과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관련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교통 분야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릉시의 ITS 비전 및 정책에 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

이다.

아울러 도시정보센터 견학 후에는, 올림픽파크로 이동하여 현재 운행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함께 시승하며 최첨단 모빌리티를 통한 스마트 관광도시 브랜드를 구축해나간다는 강릉시만의 비전을 알린다.

임신혁 ITS추진과장은 "강릉은 2026 ITS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기술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 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레거시 라운드 테이블' 개최



평창군과 2018평창기념재단은 27일(목) 오후 2시, 평창올림픽플라자 2층 레거시홀에서 '평창올림픽 레거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 어떻게 계승하고 확산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 관계자와 유산 사업 기관, 학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평창올림픽 유산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 '올림픽 도시 레거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김진선 前 강원도 지사가 기조 발언을 했으며, 조현주 한국스포츠과학원 선임연구원이 '올림픽 도시 3.0을 향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염돈민 평창올림픽레거시

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심재국 평창군수와 객영승 2018평창기념재단 대외협력처장 등이 연사로 참여해 평창이 지난 7년간 축적한 올림픽 유산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두 번째 세션은 '올림픽 레거시 라운드테이블'로 김명준 한양대 대학원 스포츠과학전공 겸임교수가 '올림픽 도시 활성화 전략 제안: 올림픽 레거시 관광'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안동규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성구 2018평창기념재단 사무처장과 김문란 前 단오제 사무국장과 문영준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조빙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해 올림픽 유산을 관광·문화·산업·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평창군이 추진해 온 유산 사업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지역 현장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올림픽 유산 사업 로드맵을 더 구체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횡성지역 활력제고 지역살리기 국제포럼

횡성군은 27일,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횡성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살리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횡성군의 지역혁신 역량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횡성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CLAIR(일본지방자치단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사무소장 후지타 에츠오)가 공동 주관하며, 개회식에서는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기 횡성군수 환영사, 그리고 표한상 횡성군의회 의장 및 후지타 에츠오 서울사무소장의 축사가 이

어진다.

주제발표는 ▲미야바야시 시게유키 교수(도쿄농대)가 '일본 농촌지역 지방창생 정책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사례', ▲후지타 에츠오(CLAIR 서울사무소장)가 '일본 미야자키현의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횡성군의 생활인구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지역활력 제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언론·지자체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횡성군의 주민주도 지역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HYDROGEN ENERGY

경기도의 미래

안전한 수소에너지로 열어갑니다.

경기도

GBS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